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11월 20일(주일) 제1418호



11월 20일까지 2023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 세우자!

11월 20일까지 2023년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모집
신입교사대상 '온라인 교사사명교육' 12월 8일~29일

11월 2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다음세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1월 20일(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일요주일에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 우측의 QR 코드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는 서빙고온누리교회 86명, 양재온누리교회 60명, 도곡교육관 26명, 사랑부 50명이 필요하다.

송지은 교사(서빙고 유년 1부)는 “더 많은 성도와 함께 차세대 아이들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짝이는 눈망울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 했고, 김성민 교사(양재 유치 1부)는 “교회학교 교사는 늘 차세대 아이들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다음세대가 신앙으로 커가는 기쁨을 함께 지켜보자”고 권면했다.

신입 차세대 교사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된다. 온라인 교사사명교육이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Zoom으로 진행된다.

문의: 서빙고(02-3215-3521), 양재, 도곡(02-570-7436), 사랑부(02-3215-2263)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청 QR〉

“이웃들에게 선물을 전달해주세요!”

2022 엔젤트리 사연 5,663건 접수



엔젤트리 사연을 뽑고 있는 성도.

“건강과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석이아 경찰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따뜻한 방한용품 선물해주세요.

”, “몽골에서 카페를 오픈하는 게 꿈인 밤비 자매에게 핸드드립 기구세트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앞으로 엔젤트리 사연 5,663건이 도착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천사가 되어줄 차례다. 2022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목회행정실을 찾으면 된다. 엔젤트리에서 사연을 뽑은 다음 기도하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된다. 엔젤트리 대상자가 크리스마스 전에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선물을 발송한 성도들은 사회선교본부 엔젤트리폰(엔젤트리 사연지 참고)에 선물발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과 사랑을 전해주는 엔젤트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434

온누리공동체 하반기 종강예배

공동체별로 12월 9일까지

2022년 하반기 종강예배를 드린다. 지난 11월 17일(목) 서초C 공동체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9일(금) 찬양지역공동체까지 공동체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종강예배를 드린다(아래 표 참조).

올해 온누리공동체는 3월 순장영성수련회, 4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5월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 6월 마리아 행전, 9월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10월 온누리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새벽부흥집회, 11월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등을 진행했다.

서빙고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2일(화)	마포	한동홀	18:00
11월 22일(화)	성북	시온홀	18:00
11월 24일(목)	강촌	두란노홀	18:00
11월 24일(목)	용산	한동홀	19:30
11월 24일(목)	서대문	시온홀	18:00
11월 25일(금)	한강	두란노홀	18:00
11월 25일(금)	관악금천	한동홀	18:00
11월 25일(금)	양천	비전홀	18:00
11월 25일(금)	동작	시온홀	18:00
11월 25일(금)	영등포구로	경천홀	19:00
11월 27일(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16:00
11월 29일(화)	OCC	두란노홀	18:00
11월 29일(화)	이촌	비전홀	18:00
11월 29일(화)	서빙고	시온홀	18:00
11월 30일(수)	북누리	북누리비전센터	20:00
12월 1일(목)	중종로	두란노홀	18:00
12월 1일(목)	성동광진	한동홀	18:00
12월 2일(금)	동대문중앙	두란노홀	18:00
12월 2일(금)	노원	한동홀	18:00
12월 2일(금)	강서	시온홀	18:00
12월 3일(토)	광명	외부장소	18:00
12월 3일(토)	김포	행복한 안디옥교회	15:00
12월 4일(주일)	고양은평	일산비전센터	16:30
12월 6일(화)	이수	비전홀	18:00
12월 6일(화)	여의도	시온홀	18:00
12월 8일(목)	신용산	두란노홀	18:00
12월 8일(목)	가정사역	한동홀	18:00
12월 9일(금)	찬양사역	두란노홀	18:00

양재			
날짜	공동체	장소	시간
11월 23일(수)	양재A	화평홀	19:50
11월 23일(수)	강남A	온유홀	20:00
11월 24일(목)	강남E	온유홀	19:30
11월 24일(목)	양재B	드림홀	19:40
11월 24일(목)	서초B	화평홀	20:00
11월 25일(금)	서초A	드림홀	19:30
11월 25일(금)	송파B	온유홀	19:30
11월 25일(금)	강남D	화평홀	20:00
11월 25일(금)	분당B	Zoom	20:00
11월 27일(주일)	하모니	Zoom	20:00
11월 29일(화)	경기A	온유홀	20:00
11월 30일(수)	분당A	드림홀	19:30
12월 1일(목)	강남B	화평홀	20:00
12월 2일(금)	도곡	드림홀	19:30
12월 2일(금)	서초D	화평홀	19:30
12월 2일(금)	송파A	온유홀	19:30
12월 2일(금)	과천의왕	기쁨홀	20:00
12월 2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20:00
12월 3일(토)	강남C	과천로고스센터	15:00
12월 4일(주일)	푸른누리	숙명여고 강당	15:30
방학없음	Bridge33+	-	-

캠퍼스			
11월 25일(금)	부천 믿음	비전홀	19:00
11월 25일(금)	부천 사랑	Zoom	20:30
11월 27일(주일)	부천 화평	비전홀	16:00
12월 4일(주일)	부천 소망	비전홀	16:00
-	부천 희락	다락방별	-
11월 23일(수)	수원 북누리	본당	20:00
11월 25일(금)	수원 동누리	본당	20:00
11월 25일(금)	수원 남누리	비전홀	20:00
11월 30일(수)	수원 서누리	본당	20:00
12월 2일(금)	대전 서누리	본당	19:30
12월 2일(금)	대전 남누리	비전홀	19:30
12월 2일(금)	대전 북누리	세종교육관	19:30
12월 9일(금)	대전 동누리	본당	19:30
11월 30일(수)	남양주 연합	본당	19:30
12월 4일(주일)	평택 연합	본당	16:00
11월 27일(주일)	인천 북누리	소망홀	18:00
12월 2일(금)	인천 서누리	본당	20:00
12월 3일(토)	인천 동누리	본당	17:00
12월 4일(주일)	인천 남누리	본당	19:00
11월 25일(금)	강동 동서울A	본당	20:00
11월 25일(금)	강동 동서울B	사랑홀	20:00
12월 2일(금)	강동 동서울C	본당	20:00
12월 2일(금)	양지 연합	박모세홀	20:00

맛있는 말씀 해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행 3: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행 3:6).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호칭은 신적인 권위와 능력, 그의 신성과 인성의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인자’(막 10:45), ‘하나님의 아들’(눅 3:21~22), ‘그리스도’(마 16:16), ‘주’(마 7:21),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호칭의 뜻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였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세례 및 신앙고백을 할 때 다양하게 사용하곤 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서신에는 이러한 호칭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자주 등장한다.

신약의 교회사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은 오순절 사건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행 3:1~10).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인성을 가리키고 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주로 고향처럼 지내면서 핵심 사역을 시작한 곳이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이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을까? 본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표기한 단어다. 그리스도란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신적 대리자 내지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구속사적 언약의 성취를 완성한 자임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이를 보여주듯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그가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Christ)’란 인자와 같은 이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신성(神性)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표현된 용어이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은 매우 심오하고 함축적인 용어임에 틀림없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양성성을 표현하고 있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복음서 기자가 보여주듯이 실제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로서 그 이름의 뜻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성전 미문의 앓은뱅이를 보며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다. 많은 주석가들이 사도행전 3장의 40살 유대인 앓은뱅이는 당시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마치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한사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손에 내어주어 죽게 만들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기에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그 이름을 선포하고, 예배에서 찬양했다. 그 이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자 존재 이유였던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던 앓은뱅이의 죄와 인생의 문제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QT 프리뷰(Preview)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경외하기

11월 21일~11월 27일
창세기 49:22~50:26,
시편 32~34편



목상포인트 1: 야곱은 총리인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이집트) 최고의 매장지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한다. 그곳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다(12:7; 17:8).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을 뒤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묵상하자.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가나안 땅 마르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한다. 그곳은 야곱의 조상들을 장사한 곳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매장된 곳이다. 야곱은 애굽에서 최고의 매장지에 묻힐 수도 있었지만,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한다. 야곱은 그의 유언을 아들들에게 모두 전하고 숨을 거둔다.

목상포인트 2: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한다. 과거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요셉이 복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한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며 나의 고난과 눈물도 섭리 속에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자.

▶야곱의 죽음은 요셉의 형들에게 큰 두려움을 준다. 고대 관습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 지금까지는 형들의 보호자가 야곱이었었는데, 이제 보호자가 사라지자 요셉이 그들이 행한 악행을 갚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걱정한다. 형들은 야곱의 유언을 내세우며 요셉의 용서를 구한다. 그것도 모자라 요셉 앞에 엎드려 그의 종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보며 슬퍼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며 그들을 안심시킨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 비록 형들의 악행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목상포인트 3: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32~34편에서 하나님을 경외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힘이 센 사자도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들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악과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다. 악을 버리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화평’(shalom)을 추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하나님은 나의 고난과 눈물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다. 당시에는 잊고 싶은 경험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이었던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말과 행동을 기록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부모님을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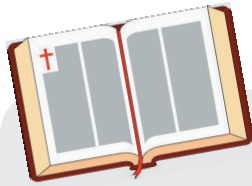
졸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사이에 익명으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부모님과 오빠, 저까지 네 식구입니다. 오빠는 4년 전 결혼했고, 저도 몇 달 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빠와 저 둘 다 부모님을 보면서 얻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결혼이 끝나자마자 부모님께서 졸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자식 두 명을 잘 키워냈으니 앞으로의 인생은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졸혼 이야기는 오빠나 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부모님은 오랜 시간 고민하신 듯 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부상담 등을 추천했지만, 두 분 다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 거절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시골에 집을 구하셔서 2주 정도 머물다 올라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과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쌓인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들이 풀리고, 남은 노년을 벗으로, 동역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9장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이 베풀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셨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10장에서 다시 꺼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오해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모든 것을 예정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시작되는 첫마디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기도와 간절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인간의 기도한 노력을 전혀 배제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다루는 이 세 장은 이렇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거부한 본인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은 어느 하나 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분명히 상반되지만, 하나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펀전 목사님은 “둘은 이미 사이좋은 친구다. 화해시킬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융합시키려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3절).

당시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고, 유대인들이 소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두 가지 상반된 사람들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걸림돌이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인간 죄악의 본성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 없이도 자기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 선한 행동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존재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덜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항상 무시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문제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2절).

헬라어로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고,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사실적인, 단편적인, 정보에 해당되는 지식이고,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검증된, 체험된, 완벽한, 정확한 지식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명확하고, 변치 않고, 완전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열심을 가졌다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의 결과입니다. 거짓된 열심은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강조점을 두기 마련입니다. 결국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열심은 자기 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죄인 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멸하시지 않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모른척 했고, 무시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3-4절).

유대인들이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라는 단어 ‘텔로스’는 목적, 목표, 계획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탁월한 법입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자기 의를 추구했고, 율법으로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의 모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에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았습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각색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유대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기 의를 끊임없이 세우는 인간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라고 했습니다”(5절).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삽니다. 지킨 것처럼 포장한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네 가까이 있으니 네 입 속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6-8절).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메시아를 만들고, 메시아의 시대가 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신명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려고 무엇인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믿음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열심 이전에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차별없이 부요하십니다.

셋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9-10절).

이 믿음과 고백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가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공적으로 고백할 때 의에 이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형식적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고, “자기 의로부터 나는 정말 자유로운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성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유용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응답하고,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내가 만난 하나님

성공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큐티로 사는 홍애경 집사의 눈물 그리고 간증(干證)

어떤 성도가 큐티를 잘하는 걸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바로 큐티 잘하는 성도다. 바로 여기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홍애경 집사(송파B공동체)가 그 주인공이다. 홍 집사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잠 8:17)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울 때 비로소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살아났다. 홍 집사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생명수 같은 큐티를 전하는 것이다. 그녀의 눈물 그리고 간증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소망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제니퍼를 만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제니퍼를
만나면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애경 집사는 세상에서도, 자녀에게도 인정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다. 성공주의자가 그녀의 꿈이었다. 과거에는 신앙과 거리가 멀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한의원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교회를 다녔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자녀에게도 인정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지인들에게 편지로 나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국내에 잠깐 들어왔을 때에는 MBC 극작가로도 활동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더 해서 한의원도 운영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의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딸 제니퍼는 달랐습니다.”

홍애경 집사보다 큰딸 제니퍼는 믿음이 더 좋았다. 홍 집사는 “성공한 엄마는 안 부럽고, 기도하는 엄마가 부럽다”는 큰딸에게 내심 서운했다.

“우리 제니퍼는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교회에 가고, 교회 친구들과 몰려다녀서 화도 나고 서운한 적이 많았습니다. 제니퍼에게 ‘교회 좀 그만 가라’, ‘우리 집에서 교회

아이들이랑 밥 좀 그만 먹어라’, ‘네 차가 교회 차냐’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믿음 좋은 제니퍼를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딸의 육종암 판정,
그리고 딸의 임종 앞에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을 앞둔 큰딸이 육종암 판정을 받았다. 큰딸의 병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홍애경 집사는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착하면 복을 주고, 악하면 벌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니퍼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더는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제니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서원하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퍼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며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쏘아붙이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임종을 앞둔 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제가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좀처럼 졸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편 121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육신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원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큰딸 제니퍼를 하나님 곁으로 보냈다. 홍애경 집사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한지 그 존재 자체도 믿을 수 없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원망은 세상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제 원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침실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 켜진 텔레비전에서 성경 한 구절이 들렸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잠 8:17 개역개정)는 말씀을 듣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막연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요 1:1)’라는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살기 위해 붙잡은 말씀 그리고 큐티

2014년, 홍애경 집사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서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그리고 큐티와 일대일제자양육을 소개받았다. 그때 만난 큐티가 지금까지 홍애경 집사가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자 자양분이 되고 있다.

“당시 두란노서원에서 하는 큐티나눔방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큐티가 조금 생소했었는데 그곳에서 큐티나눔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화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감사가 생겨났습니다.”

당시 홍애경 집사의 마음은 활화산 같았다. 거리에서 제니퍼 또래의 커플이나 부부만 보면 숫구쳐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 하루라도 말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제니퍼 없이도 변함없이 해가 뜨고 또 밤이 되는 세상을 볼 때마다,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딱 하루를 살기 위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큐티가 광야 같은 제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엄마

말씀과 큐티는 홍애경 집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선물해줬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입술이 생겼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 큰딸 제니퍼가 그토록 바라던 기도하는 엄마가 됐다.

“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 소망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제니퍼를 만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제니퍼를 만나면 조금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애경 집사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으로 큐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큐티 내용을 글로 정리해서 지인들에게 나눴다. 그 눈물로 쓴 고백을 엮어 <오늘도 만나 줘는 여자>, <만나집사의 큐티 감사일기>를 출간했다. 그 책에 슬픔이 기쁨으로, 분노가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홍애경 집사에게 큐티를 잘하는 비결을 물었다. 홍애경 집사가 가슴 속에 감춰둔 그 아름다운 비결을 소개했다. 간절함과 기쁨이 바로 그것이다.

“큐티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일입니다. 큐티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게 전부입니다. 바로 그 간절함과 기쁨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세우신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 묵상하는 ‘성경적 리더십’



박철웅 목사
(양지온누리교회)

나는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항상 관심이 있었다. 우연히 창세기 50장 19~21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어떻게 비범한 리더로 세우시는지를 묵상하게 되었다.

리더십이란 지위(Position)나 힘(Power)이 아닌 ‘통합적인 개념’이다. 어느 한순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나 하나의 사건을 통해 리더십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리더십을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리더십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성경적인 리더십은 성공을 모티브로 하는 세상의 리더십과 구분되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예수님의 리더십과 비슷한 인물이 요셉이다. 요셉의 삶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요셉의 인생 그리고 고난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하나의 꿈을 보여주신다.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다(창 37:10). 어린 시절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 그 꿈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아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도 그 꿈을 놓지 않았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도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이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하나님을 떠나 밋세바의 유혹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창 50:19)라는 요셉의 고백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이었다”는 신앙고백이 들어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말하고, 고난 중에도 약속의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비범한 리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요셉과 같은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하며,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 달이 달걀을 품듯이 항상 말씀을 품어야 한다.

성경의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면서 세워진 왕들에 대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바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말한다.

사울의 길은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이고, 다윗의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삶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사울의 길을 따랐는지 혹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리더십을 평가했다.

두 리더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의 유무다. 사울이 고난 없이 세워진 리더의 전형이라면, 다윗은 고난을 겪은 후에 세워진 리더의 전형이다. 성경은 고난 없이 세워진 사울의 말로는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세워진 다윗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극복했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생을 마쳤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운 축복임을 알 수 있다.

요셉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이 등장한다. 그는 친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자신이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받아 감옥에 갇혔다. 도움을 주었던 술 관원이 복권된 이후에도 몇 년을 완전히 잊힌 자로 지내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 그 영혼을 담금질하는 시간이었다.

요셉은 누구보다 버림받음과 배반의 고통을 잘 이해한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겪은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은 잊히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잊히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하나님도 자신을 잊었다고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다양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버림받음 사건을 통해 요셉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구체화 되었다. 보디발에게 배반당해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도왔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애굽의 정치를 잘 이해하게 되었는데, 이는 훗날 요셉이 많은 정적 속에서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복직된 술 관원의 추천으로 요셉이 애굽 총리로 발탁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뤄지는 시기가 바로 이 때임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자신이 꿈의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애굽에 미리 보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창 50:20).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이룰 때까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가뭄의 시기에 굶주린 많은 애굽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깨

달았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실현 과정이다.

성공한 리더 VS 위대한 리더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한 리더에 머물게 하지 않고 위대한 리더가 되게 하셨다. 성공한 리더와 위대한 리더의 차이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다. 자신의 당대에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리더는 성공한 리더지만, 위대한 리더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세대까지 전달해주는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세대와 그 다음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국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됐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워했다. 아버지 생전에 피를 보지 않으려고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에 복수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피의 복수를 할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요셉에게 나아와 앞드리며 스스로 ‘요셉의 종’이라 불렀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라고 거짓말 한다. 요셉은 형들의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형들의 자녀까지도 자신이 돌보겠다고 약속한다(창 50:21).

요셉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 둘은 버림받고 배반당하는 인생 여정이 비슷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잊힌 존재로 살았던 것도 비슷하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이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워진 것도 비슷하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도 비슷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 다음세대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가계의 나쁜 영향력으로 인한 죄를 끊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비범한 리더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시고, 사래를 사라로 삼으셨다.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변화시키셨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요셉과 같은 위대한 리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해 편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목사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정말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확실한 법, 더 나아가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와 크리스천을 향해 “편협한 시각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질 수 있는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약 3:1, 9, 13). “내가 창조한 저 사람을 왜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한 저 사람을 왜 네가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것은 죄다. 거기에는 심판이 있다”고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처벌이 겁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무서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차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다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구별에 대한 문제다. 세상은 계속해서 젠더 이슈,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차별에 대해서도 분명하시지만, 구별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세심한 분이시다. 특히 죄의 문제, 죄 오염의 문제, 죄가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잔인하리만큼 철저하시고 단호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다. ‘왜 십일조를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가?’, ‘왜 예물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가?’, ‘다른 돈은 차별하는 건가?’ 결코 아니다. 구별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배우자만

선택해야 하는가?’ 그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만을 구별해서 사랑하겠다는 뜻이다.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느냐?’ 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신앙적 선택이자 결단이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에스겔 44장 23절에서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라고 하신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에서 자녀들과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구별하라, 구별하리니, 구별하여, 구별되라, 구별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구별을 차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차별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외의 성

에 관해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혹은 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처벌해야 하니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구별의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차별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의 성육신(Incarnation) 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구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사랑은 차별에 있지 않고 오직 구별함에 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삶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구별되어질 뿐이다.



최대홍 목사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칭찬을 활성화!

칭찬이란 한 사람이 했던 일이나 행동 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칭찬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을 내리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칭찬은 객관적인 평가보다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같은 행동을 보고 누군가는 칭찬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무덤덤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마음에 있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도 많은 유익이 된다. 특히 가족은 더 많은 칭찬을 표현해야 하는데, 의외로 칭찬이 부족할 때가 있다. 사람 사이가 가까워지면 칭찬할 것보다 단점이 잘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단점을 지나치게 어려워져 지적할 때가 종종 있다. 자녀에 대해서도, 배우자에 대해서도 칭찬보다 눈에 보이는 단점이나 고쳐야 할 점들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단점을 드러낼수록 관계가 어려워지고, 단점을 듣는 당사자는 더욱 위축된다. 물론 불편한 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칭찬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

칭찬은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 오늘 하루 칭찬할 것을 찾아서 꼭 돌려주겠다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돌려줘야 할 칭찬을 찾고자 마음먹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다. 대단한 무엇인가를 행동에 옮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작은 것을 찾아

돌려주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어제와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 차이를 칭찬으로 돌려줘야 한다. 칭찬할 행동이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돌려준다면 당사자는 매우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칭찬은 자존감을 높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매우 위축된 사람을 보면 성장 과정에서도 그렇고, 살면서 타인에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매우 빈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칭찬이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작은 칭찬이라도 하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 정도 칭찬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부부와 가족은 서로 칭찬이 익숙해질 정도로 자주 주고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신과 상대방의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 자존감은 스스로 키워가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만일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올바르다고 평가받아서 많은 칭찬에 휩싸여 산다면 학교생활은 당연히 행복한 것이고, 자존감도 높아질 것이다. 부부와 가족이 서로 칭찬을 아낌없이 주고받는다면 서로의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외부의 충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게 된다. 외부로부터 받는 상실감과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도 비교적 잘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된다.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행동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줘야 한다. 두루뭉술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칭찬으로 돌려줘야 한다. 구체적이면 그 사람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상대의 노력을 공감하고 칭찬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더 나아진 행동이나 조금 더 달라진 행동,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도움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려면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칭찬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관심한 상황에서는 칭찬할 것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소한 변화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식물을 좋아하는 이들은 식물의 아주 소소한 변화까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작은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가족 안에서도 작은 변화를 찾아서 칭찬할 수 있으려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근 배우자와 자녀의 어떤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칭찬을 돌려주는 긍정적인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자주 책망을 돌려주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책망과 비난을 자주하기보다 칭찬할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돌려준다면 배

우자와 자녀의 내면이 더욱 건강하게 될 것이다.

칭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칭찬이 인색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칭찬도 인색하다. 사람은 자신이 받아본 정도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이 받아본 칭찬의 수준을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 있다. 자신을 먼저 칭찬하고, 그 칭찬을 수용하며, 칭찬이 주는 유익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를 칭찬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칭찬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신을 칭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칭찬보다 비난과 원망과 질책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냉정하게 대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에 대한 칭찬, 부부와 자녀와 가까운 사람에 대한 칭찬이 선순환 되도록 칭찬을 활성화해야 한다 (잠 27:21).

나눔: 자신이 최근 가족에게 했던 칭찬은 무엇입니까?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2022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11월 26일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명예권사 4명, 권사 195명, 안수집사 335명 임직



사진은 지난해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2022년 온누리교회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11월 26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이날 권사 199명(명예권사 4명, 권사 195명), 안수집사 335명(남 105명, 여 230명)이 임직된다.

임직 대상자들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된 ‘2022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임직자스쿨에서는 ‘교회론과 목회철학’, ‘행복한 가정과 리더’, ‘부르심과 헌신’, ‘안수집사 및 권사의 모델’, ‘일터 영성’, ‘교회사역 소개’, ‘온누리교

회 비전과 창의적 리더’ 등을 주제로 박종길 목사, 이기훈 목사, 이남식 장로, 김영애 권사, 이백용 장로, 이재훈 담임목사 등이 강의했다. 새벽기도회, 성경통독, 독서보고서, 큐티 등 개인영성훈련 과정도 모두 이수했다.

임직 대상자들은 반드시 임직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지각이나 불참하면 임직받을 수 없다. 복장은 남자는 검정색 정장(흰색 셔츠), 여자는 검정색 혹은 짙은 색 바지정장(자켓 필수)에 흰색 블라우스(셔츠)

를 입는다. 주차는 3인 이상 동반 차량만 교회 내에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양재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셔틀 운행, 4시간 무료 주차권 지급).

최현주 성도(도곡공동체, 안수집사 임직 대상자)는 “부족한 제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늘 신실하고 흔들림 없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화성M센터 한국어 교사 모집

네팔, 캄보디아 이주민 대상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화성M센터(화성시 향남읍 3.1만 세로 1103-1호 3층)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섬기면 된다. 한국어 교육 대상은 네

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이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0-4605-2510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제10회 미술작품전시회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남산도서관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제10회 미술작품전시회를 연다. 이주민 차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는 게 그 목적이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제10회 미술작품전시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남산도서관

관 1층 남산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다문화 아동 40여 명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는 매년 2회 안산M센터에서 다문화 아동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예수와 예배에 미치자!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워스킹’

기독교 OTT ‘풍당’이 또 하나의 콘텐츠를 내놨다. 예수와 예배에 미친 청년들의 예배를 소개하는 콘텐츠 ‘워스킹’이 바로 그것이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워스킹’에서는 온 열방에 예배 운동

을 일으키기 위해 사역하는 문화사역공동체 ‘워십퍼스무브먼트’의 거리 찬양을 소개한다. 다음 세대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신앙을 체험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한 콘텐츠다.

2022 온누리 입양위탁 세미나

사회선교부 제이홈사역팀(입양위탁공동체)에서 ‘2022년 온누리 입양위탁 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0일(주일) 오후 5시 강동온누리교회(전호3동 453-19 나비쇼핑몰 11층)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과 한국입양선교회 오창화 대표가 강의한다. 특순도 있다. 제이홈 자녀들(입양, 친생자녀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찬양을 부르며 울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10-7581-4995

2022 수능당일기도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1월 17일(목) 차세대사역본부가 수험생을 위한 ‘수능당일기도회’를 개최했다.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이날 기도회에는 수험생 부모와 차세대 교사, 목회자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참석자 모두가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충분하다는 여인의 믿음을 체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정현주 기자

The 멋진 당신 ‘The Next’ 콘서트

12월 4일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

CCF(Christian CEO Forum)에서 2022 The 멋진 당신 ‘The Next’ 콘서트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4일(주일) 오후 5시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홀(용산구 청파로 20길 95)에서 열린다.

2022 The 멋진 당신 ‘The Next’ 콘서트에서는 게리 하우겐(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국제정의선교회) 대표가 ‘바른 원칙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게리 하우

겐 대표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 인권변호사, UN 르완다 학살현장 조사 법무책임관 등을 역임했다.

2022 The 멋진 당신 ‘The Next’ 콘서트 게스트도 풍성하다. 류승주(뮤지컬 가수), 범키(가수), 크룩스(남성 가스펠 중창 그룹)가 게스트로 출연해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010-9587-9224

선교재단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250포기 전달



김장김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14일(월)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및 봉사자 서른 명이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김치 250포기를 담갔다. 교회 이웃주민 4명도 참석

해 더욱 의미 있었다. 이날 담긴 사랑의 김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한부모 가정, 교회 주변 아파트 경비원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 나눠줬다.

임영필 집사(온누리선교재단)는 “내년에도 사랑의 김치 나눔 축제를 열어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더 헌신하고 더 배려하겠습니다”

2022 온누리교회 간사 수련회 개최

온누리교회 간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배려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11월 15일(화)과 16일(수)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2022 온누리교회 간사수련회’가 열렸다. 이날 간사수련회에는 온누리교회 간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간사수련회는 예배, 팀빌딩, 노치형 목사(목회행정실장)와 이남식 장로의 강의, 중보기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노치형 목사는 ‘매트릭스 시스템

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며 “간사공동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배려할 때 교회가 살아난다”고 권면했다.

이남식 장로는 ‘공동체 리더십의 핵심’을 주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 되자”라고 강의했다.

채민 간사(IT지원실)는 “간사수련회에서 다 함께 다짐한 대로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동료를 더욱 배려하는 간사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누리통합팀 연합예배

11월 20일 오후 2시 양재 JDS홀

한누리통합팀이 11월 20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기훈 목사가 설교하고, 각 공동체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누리통합팀은 탈북민들을 섬기고, 미래의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사역팀이다.

한누리통합팀 연합예배에는 한터공동체(서빙고), 하나공동체(양재), 한사랑공동체(부천), 복사랑공동체(남양주), 하나원사역팀 소속 성도와 봉사자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성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원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앨버틴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8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를랜드 유현욱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병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주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수 김승완
김승훈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중민 김중아 김중호 김철호
김태용 김태완 김한구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도육한 럼문홍 문영재 문장원
박근범 박시형 박성은A 박성은B
박자천 박진중 박형준 배형삼
백인규 백대섭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훈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매리야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서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장병천
전진익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찬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조영호 최대용 최성규
최정민 최영진 최용준 최중현
최형준 추대식 하성희 하정환
한은선 한화수 한송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신현민 송동주 오현교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주하늘
전진미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해미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세테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도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경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환 김은하
김종영 김태주 김해경 네트라
뉴이엘은 鄭維翰 파주+농 박씨마
박영규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성우매는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톰
윌리엄 이성광 이세영 이진이
이진희 윤준석 윤치연 전 진
제인랑 차제이 최정현

●전도사(파트)
강하람 강현구 권예람 김가희
김동규 김반석B 김세미
김수영 김영신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경무 김경호 김지선A
김지선B 김진성 김진희 김태광
김하은 김한빛 김한영 이진이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새미
박예슬 박유진 박지수 백오한
박태훈 방예린 배명지 백요한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송예찬
이진숙 신대중 신대중 신수용
심은섭 심애원 안무택 양현모
오국현 오성광 오재경 우승민
이진수 이주원 유석현 유성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신혁 윤종연 윤대경 윤효정
이병희 이만규 이사무엘 이상은
이선영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신숙 이신임 이연아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목 이휘영
임광병 임노완 임동현 임송아
임진숙 유진민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장지훈 정상원 정영영
정준혁 정영진 정예은 정주영
정희애 정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은광 지수정 진성희 진유석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진 한용태 허영은 허정현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인식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철
김기호 김남열 김병종 김병철

김상철 김성국 김성우 김용성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중배
김원규 김원중 김윤식 김승철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철 김상권 노재한 노홍규
김현철 나성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장호 문장우
문충실 문형남 박 공 박병근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오환 백홍기 상병선 서진봉
서찬교 성장섭 손한기 손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조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중 심상달 심재국
심창구 심초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안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범 원우현 유병훈 유안영
유재현 윤기홍 윤성열 유이준
윤영섭 윤영오 윤형주 이광형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창로 이재정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현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우 정돈영 정병균 정보원
정순봉 정영열 정용화 정택탁
정재현 정희태 조구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진 조주원 주용일 차승철
최준진 최현무 최득민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우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영희 한중대
한형식 함규식 함진호 허영석
홍종일 홍기명 홍대표 홍병식
홍종철 황영욱 황용오 황재규

●사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인익 강은철 강영재 강철호
강태욱 고다익 고영주 광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용환 김광훈 김기섭
김경하 김광하 김도영 김동연
김기영 김남식 김도영 김동연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병현
김병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상집 김상철 김진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국 김영국 김용기 김용호
김영환 김영환C 김이준 김인선
김우호 김 원 김재일 김경민
김정열 김재욱 김중호 김준규
김정환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경 김재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식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주연
나희룡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남정환 문성찬 문영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태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광근
박종민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균
박흥선 방찬중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서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경태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한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화철 신현승 심길성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현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준경 양종식
오 명 오만규 오상록 오성훈
오성택 오이식 윤내문 유세훈
원종호 유병진 유복국 유재홍
유 형 윤석우 윤석주 유수민
윤영자 윤현덕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규 이대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재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 광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대서
정명호 정문규 정성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용화
정일영 정예환 정진호 정태경
정학재 정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한
조희준 조성구 조희동 주재량
진종구 차준환 최도식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최재경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현수 최호림 하성기 하주헌
한백진 한복규 한상규 한왕식
한창재 한희준 한필규 한일성
합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선호 홍의택 홍정표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황의서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수 정상진 지성한
채수삼 최장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권드판S 박자인
박형규 양소승 우성근 유재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준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근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은혜 김경정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김지영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진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이혜경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해경 최윤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상욱
고은찬 김강리 김가아 김병석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설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선희 박지훈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은영 안지연 안희준 오수영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준순
윤정규 이나래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요한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현 서재욱 설성정 송민선
안대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윤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무미 정선진 정은숙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키 하정훈 한현희 호상나
황나현 핸슨S Amos Lee Chris
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태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태환 박재현 손경래 신술문
여훈림 유희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병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안정식 임한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경 김진용 김홍규 남병호
박진규 박선연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림 연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해외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욱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재욱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종재 정정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식 서성광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환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유운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홍 정상현
전홍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소천

11/10(목) 강남A 이소현 안수집사 부친상 고 이재욱
11/11(금) 송파A 정필범 성도 모친상 고 조원주
11/11(금) 강남B 이혜숙 권사 시모상 고 구판점
11/11(금) 양천 장노욱 성도 부친상 고 장동준
11/12(토) 김포 신남소 권사 모친상 고 김보배
11/13(주일) 김포 한민정 성도 모친상 고 남궁용애
11/13(주일) 하나 김미경 성도 부친상 고 김정석
11/13(주일) 송파A 고 배종수 장로
11/14(월) 서초B 송희정 성도 시부상 고 박재열
11/14(월) 성동광진 허혜숙 집사 모친상 고 이희섭
11/14(월) 노원 김준연 성도 부친상 고 김진아
11/15(화) 강촌 홍지희 집사 부친상 고 홍성무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환 간사(010-6209-3667)

서초구가족센터 '예비부부교실' 참여자 모집
내용: 결혼 가치관, 인생관식 공유, 성격차이 이해, 건강한 대화법 교육
일정: 11/05(토), 11/12(토) 13:30-17:30
신청: 온라인 신청(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 홍보지 참고)
문의: 서초구가족센터 김수경(070-7477-2406)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장은정 팀장(070-4340-2510)

서초구립네트나무쉼터 IT 교육봉사단 2기 모집
모집인원: IT 교육봉사에 관심 있는 서초구민 15명
모집기간: 11월 1일(화)~13일(일)
주요활동: IOT 스마트로봇 및 스마트부스(1:1교육) 운영, 스
마트폰 기초 강의 진행 및 보조강사
문의: 김현숙 사회복지사(02-6863-7133-4)

제 정

십일조현금: 하나는행 573-810034-10105
주일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는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는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는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보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T&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뷰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카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광고

온누리선교재단(양지비전빌리지) 사원 모집
모집: 양지Acts29비전빌리지 조리사 및 사무직 각 1명
근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
자격: 고등학교 졸업 이상, 조리사(자격증 소지자), 사무직(유
관 근무 경험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제출: honeypy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CGNTV 채용 공고
부서: IT솔루션팀 (경영지원실)
업무: 서버, 네트워크, 보안문제&장애처리, 미디어자산 관리
등

부서: 디자인2팀 (디자인센터)
업무: [모션그래픽디자인] 모션그래픽디자인(인트로 타이
틀, 브릿지, 트랜지션), 영상CG디자인(상황에 맞는 이미지제
작, 영상 이미지 합성)

부서: 콘텐츠제작1실
업무: [PD] 유튜브 후속 비디오 콘텐츠 프로그램 제작 및 중계

부서: 홍보기획팀 (커뮤니케이션실)
업무: 브랜드 및 홍보기획
자격: 필수-홍보기획, 브랜드커뮤니케이션, 관련 경력 5년 이
상, 우대-브랜드 캠페인 진행경험, 조직관리 능력